

‘가늘고 긴 투명한 빛’은 영사기에서 출발해 스크린까지 뻗어나가는 빛을 은유합니다. 그 빛은 스크린에 닿기 전까진 그저 어두운 허공을 한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몇 가닥의 빛줄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 고개를 들어 그 빛줄기들을 잠시동안 바라보는 걸 즐겨합니다. 그러면 어쩐지 차분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소요필름의 현재가 대략 그 정도이지 않을까?

아직은 스크린에 가닿지 못한 가늘고 긴 투명한 빛?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번 상영/전시의 제목을 <가늘고 긴 투명한 빛>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소요필름은 앞으로도 늘 단편영화를 만들고자 하고 저희 나름의 방법론으로는 시즌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즉, (최소한) S/S 시즌에 한 편, F/W 시즌에 한 편의 단편을 제작하고 이번처럼 연말 시즌 오프를 통해 그간 완성된 작품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때 영화 외에도 미디어아트, 설치, 도서부터 상품까지 저희가 만든 온갖 것들도 함께 공개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계획일 뿐이고, 업계의 관례나 영화제 출품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영/전시가 **첫 시즌 오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즌제 도입 이전에 시즌 오프부터 하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

무엇보다 저희의 첫 시즌 오프가 뜻깊은 것은 적으나  
마 (소요필름작이 아닌) 좋은 단편들도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초청작(?)의 수도 조금씩 늘려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소요필름 작품들의 경우, 부족함 투성이에, 몇몇  
은 완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가능  
한 많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편이 저를, 그  
리고 저희를 더 나아가게 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자리임에도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마다 만나요:)



<가늘고 긴 투명한 빛>은 소요필름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작품을 배치하고 상영합니다. 따라서 먼저 각 섹션에 대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 섹션 1. 짧지만 충분한 영화

소요필름은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하나 필요했던 것인데 이왕 이름을 정한 김에 슬로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짧지만 충분한 영화’ 입니다. 그렇게 정했을 당시의 문제의식은 “어째서 단편영화는 단편소설과 처지가 다른가?” 였습니다. 소설작가들은 대부분 장편과 단편을 자유롭게 오가고, 그들이 쓴 장편과 단편 모두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느낌(의문)이 이후 소요필름의 개성을 만들어가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대략 6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지만 충분한 영화는 어떤 영화든 우리 삶에 비한다면 짧다는 믿음으로 단편, 장편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가겠다는 소요필름의 근본적인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희가 만든 단편들을 소개하고, 단편과 장편 사이를 가로놓는 장편 제작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 섹션 2. 함께 만드는 영화

저희는 영화가 대개의 경우,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는 점에서 좋은 영화의 출발점이 좋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창작자들과 함께 트  
리핑tripping이란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작업방식  
전반에서도 ‘함께 만드는 영화’ 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함께’ 의 의미와 범위를 확  
장해나가는 . 저희는 그것을 ‘가장자리되기’ 라고 부르  
는데 그 의미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여러 감독님들의 작품을 상영하며, 트  
리핑에 대한 소개 그리고 최근 출간된 트리핑의 첫 결과  
물인 시나리오집 <3X3>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  
다.

## 섹션 3. 지구를 지키는 영화

아,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소요필름이 영화산  
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지구가 멀쩡해야  
저희가 사랑하는 영화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영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영화의 형식을 관찰하는 실험을 이  
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 초기 실험에 해당하는 <내 사랑의  
생태계>, 그리고 후속 프로젝트인 <정상에서 일어서기  
>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사랑

앞서 설명드린 섹션의 제목들은 저희가 품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찾아낸 대답들이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이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를 지속가능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으나 제 작품들 각각을 어떤 섹션에 배치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 세 개의 대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 입니다.

이후 많은 페이지에서 반복되게 될 화두라고 할 수 있으니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구성(의 변)

본 책자는 소요일름의 첫 결산이 되는 행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소요일름의 단편과 연관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분량이 다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초청작들에 대한 소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짧은 준비 기간도 크게 작용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외부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그러한 점은 저희에게도 큰 아쉬움입니다. 내년에는 함께하는 초청작 그리고 그 감독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풍성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서문 (1-2)

섹션 소개: 현재 버전 (4-7)

안내 (8)

소요필름 상영작 소개 (12-)

초정 상영작 소개 (48-)

섹션 소개: 미래 버전 (88-89)

발문 (90-93)

## 안내

### 1-1

각 섹션은 컬러로 구분됩니다. 이후 작품 소개에서도 컬러로 각 작품의 상영 섹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컬러
짧지만 충분한 영화	
함께 만드는 영화	
지구를 지키는 영화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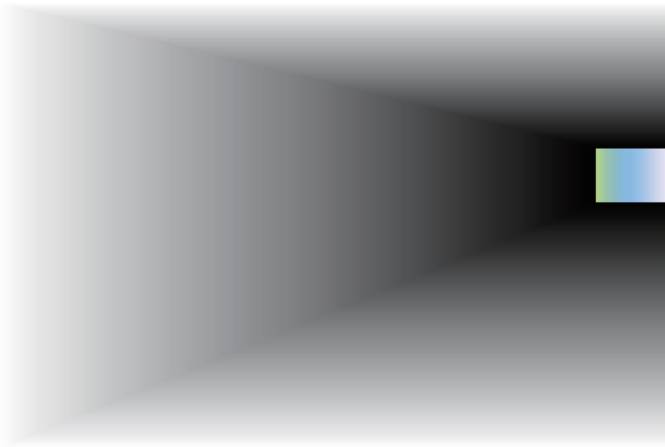
소요필름의 단편들은 흑백 버전으로 상영합니다. 그것이 “가늘고 긴 투명한 빛”이라는 시즌 오프의 제목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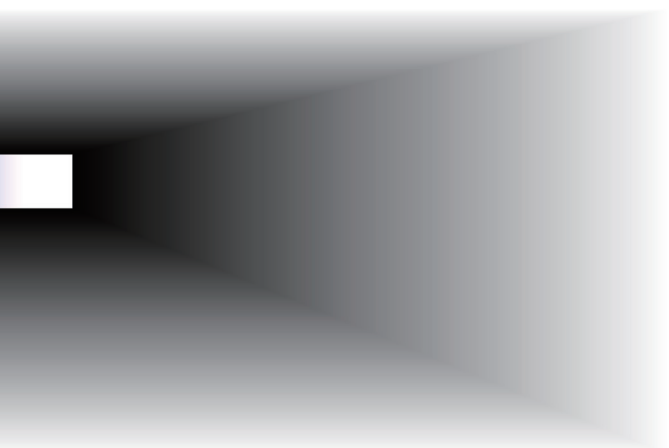
### 2-2

다만, 컬러와 흑백 사이의 전환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품, <쉬운 일 아니에요>와 초청작들은 예외입니다.



가늘고 긴  
투명한 빛(들)





소요필름 상영작 소개



**시놉시스**

서로 사랑하는 서윤과 윤서는 헤어지기 위해 만난다.

**제작진**

제작/연출/각본/편집_ 허성완	연출부_ 문동욱 이재철
조연출_ 송은지	이재환 정근원
촬영/조명/DI_ 신상철	제작부_ 구재서 오대성 임필순
개편_ 정은용	촬영부_ 김영광 민지영
동시녹음_ 송근우	조명부_ 정진희 나호원 최유환
음악_ 정경윤 신승진	스토리보드_ 민지영
음향_ 최길섭	출연_ 윤금선아 임새라

## 감독의 말

<위르트에서>는 제가 처음 만든 단편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털어놓듯 이야기하는 제작비화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만든 해인 2014년은 제가 직장 졸업을 한 뒤 첫 단편을 연출할 마음으로 이야기를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자 저는 그 사건에 관한 단편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두 소녀가 등장하고 해변에서만 진행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배 안에 갇힌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화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멈춰있을리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세월호 사건도 시시각각 암담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적으로 로케이션을 확인하고 올라온 날, 그 영화를 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현실 안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한 주쯤 지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위르트에서>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확정되어 있던 스태프와 배우(다만, 전 소니 배우는 하차했고 다음 작품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분들을 전제로 해서 새 시나리오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퀴어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젠더 이슈에 알으나마 관심을 갖고 있긴 했지만, <위르트에서>는 (퀴어영화라기보단) 명백하게는



사랑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능한 풍성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작품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포기’ 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죄책감으로 남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를 두 번째 영화로 이끌게 됩니다.



**시놉시스**

가까운 미래,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린다. 그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만, 수년 간의 연구 끝에 구름을 제거할 수 있는 화학무기 CW-26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이 소식에 모두가 안도하는 것도 잠시, 곧 이 신형 무기의 치명적인 결함이 밝혀지면서 세계는 그 사용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그 날” 이후, 대다수가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리하여 결정된 CW-26 살포를 3일 앞둔 어느 날, 민선이 호명을 찾아온다.

**제작진**

제작/연출/각본/편집_ 허성완	스크립터_ 이진영
프로듀서_ 강희정	연출부_ 김동연 김진환 조양호
조연출_ 이병문	제작부_ 송희근
촬영/조명/DI_ 신상철	촬영부_ 이은비 조세웅
동시녹음_ 안성일	조명부_ 송민지 설진석 최슬한
미술_ 우주연	미술부_ 김동민 김태우 최하은
분장_ 김미리	출연_ 권다함 전소니
음악_ 정경윤	제작지원_ 영화진흥위원회 J4
음향_ 이혜민	

**연관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세월호를 기억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

미디어아트 <충분한 시간>

상영회 <찰나>

쉬운 일 아니에요

2016 / 혼합 / 53분

<가늘고 긴 투명한 빛>에서는 60분 확장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 감독의 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르트에서>의 영향으로  
저의 두 번째 영화는

지난 10월 마무리한 전시 <오, 나의 부이>에서도 세  
월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세월호는 계속 가져가게 될 주제 중 하나인 듯  
합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르트에서>의 영향으로  
저의 두 번째 영화는

에코백 전면에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나타내면서도 제품  
의 실사용자분들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흐릿한 의도에 마진석 감독 겸 디자이너는  
 영민한 디자인으로 응답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에  
 관해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펀딩

참고\_ [www.tumblbug.com/noteasy](http://www.tumblbug.com/noteasy)

## 상영화 <찰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르트에서>의 영향으로  
저의 두 번째 영화는

지난 10월 마무리한 전시 <오, 나의 부이>에서도 세  
월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세월호는 계속 가져가게 될 주제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소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쉬운 일 아니에요>로부터 뺀어 나온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복잡하고 심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작진**

연출\_ 마진석 허성완

각본\_ 마진석 허성완

촬영\_ 박현우

전시버전 촬영\_ 마진석 허성완

음악\_ 이해민

출연\_ 윤설 권다함(목소리)

**연관프로젝트**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전시 (2014. 4. 14. 광화문)

충분한 시간      2018 / 컬러 / 가변크기 / 3채널 비디오, 사운드 / 12분

<가늘고 긴 투명한 빛>에서는 <쉬운 일 아니에요>와 함께 상영됩니다.

## 감독의 말

<충분한 시간>은 <쉬운 일 아니에요>에서 저와 마진석 감독님의 공동연출작입니다. 저희는 작품의 대본도 절반씩 나눠서 썼는데 그 중 제가 쓴 부분은 작품 속에서는 묵음 처리되는 까닭에 들을 수 없었고, 단지 함께 배치된 엽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 4월 8일, 1993년 3월 28일, 1994년 10월 21일, 1995년 6월 29일, 2003년 2월 18일, 2014년 4월 16일...

나는 그 날의 재앙을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때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 다짐한 뒤 잊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당신이 과거를 떠나보내는 방식이며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래되면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 뜻밖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 뻘한 논리 안에 소년이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객쩍은 질문은 사실 하나였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했나요.” 이제 내겐 소년에게 줄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건 생각해보면 오래 전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수없이 반복되는 “충분한 시간” 들.

그때마다 우린 답을 알았고 기억했습니다. 고친 적은 없습니다.

나는 답을 찾으면 끝낼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겐 소년에게 줄 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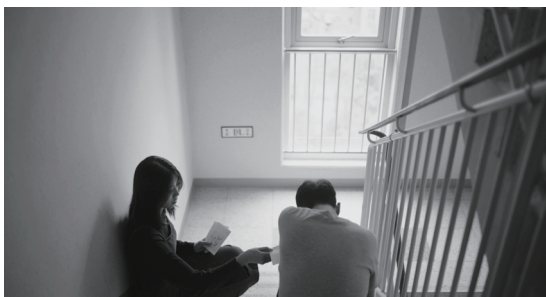


나는 소년이 답을 몰라 괴로워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괴로워 했던 이유는 그의 질문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답을 내놓고, 곧 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더는 소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글에는 마치 검열당한 듯 검게 가려진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찾은 ‘답’ 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우리들 각자가 그로부터 각기 다른 답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가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허성완

각본\_ 허성완

촬영\_ 목충현

동시녹음\_

출연\_ 권다함 강선희

현장지원\_

제작지원\_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연관프로젝트**

제1회 자씨네 마을영화제

## 감독의 말

이 작품은 본래 마을 영화제를 위해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영화가 제작되기 한해 전인 2016년부터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영화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단지에는 작은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3, 40석 규모였는데 주말마다 주민자치금으로 산 블루레이를 틀어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쓰임이 없던 차였습니다. 작긴 했지만 갖출 건 갖춰져 있던 그곳이 그러한 식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던 저는 무작정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문을 내걸고 영화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명 정도가 모였고, 저는 그때부터 저는 매달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스터 제작, 홍보, 밴드 운영, 작품소개 등 온갖 것들을 혼자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송곳니>를 틀기도 했는데,

영화동아리의 이름은 자씨네. 자연앤자이씨네마클럽. 모토는 ‘사람사이 영화농기’ 영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가 희망인 만큼이나 절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것이 또한 자씨네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공모했던 마을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되어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조차도 회피하고 있던 영화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기획, 디자인, 행정, 정산 등을 몸소 깨우쳤으니 돌이켜보면, <위르트에서>와 <쉬운 일 아니에요>를 연달아 찍고 작품활동에 난항을 겪던 시기에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주었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버스 온 스테어스>는 문체의 그 영화제의 폐막을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자 세 게 상 봉  
 세 번 릴  
 네 재 라 영 호

플란다스의 개

6월 19일 월요일

늦은 여덟시



## 자씨네 경과 보고

1.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73세대 서명 그 중 찬성이 70세대 반대 3세대. 과반수 투표 달성 실패 및 당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상 지원이 불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중지. 향후 사업진행과정 중에 다시금 '자씨네'로 등록하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현재 자부다금 240,000원 확보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4월 초 전체 예산 중 80% 지급 예정.
3. 로고 제작 : '사람사이 영화놀이'라는 주제로 제작 중. 아래는 그 시간. 추후 움직임을 적용할 예정. ('자씨네' 문구 등장 -> 양쪽에서 원이 나타나서 가운데로 움직이다가 멈춤 -> 가운데에서 푸른 빛이 나타났다가 달 형상으로 변신 -> '자씨네' 아래에 '사람 사이 영화 놀기' 문구 등장)  
: designed by layandburn\_studio (마진석 + 허성완) : 진성이가 현재 런던 유학중인 관계로 허성완이 디자인 중이며, 디테일(컬러, 형태 등)은 자문을 구할 예정.



## 자씨네 향후 구상

1.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직으로 분화 : 1) 영화제 조직위원회(자씨들) 2) 영화제작반(자씨네 픽처스) -> 더 좋은 예명이 있으면 제안 부탁드림. (총회 전 공지)
2. 각 조직의 목적과 업무는 다음과 같음. : 1) 자씨들 : 상영회 개최/영화에 관한 토론 등 -> 7월 경부터는 영화제 기획에 전념(상영회 기획을 통해 연습 +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방안도 있음)
- 2) 자씨네 픽처스 : 영화제작
3. 허성완은 자씨네 전체의 대표로서 그와 동시에 영화제작반 운영. 그럴 경우, 영화제 조직위는 다른 분이 맡아주시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됨. 큰 틀에서 두 조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 가령, 상영회를 영화제작을 위한 기초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경우, 상영회 + 영화제작교육을 함께 할 수 있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두 조직의 운영주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4.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자씨들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일. 여기서부터 난관이 예상됨. 그러나 허성완이 많은 걸 도맡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운영주체를 분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5. 회계 : 영수증 처리만 제대로 하면 큰 문제 없음. 허성완은 영진위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상대로 정산을 해본 바 있음.
6. 전체 예산 : 470만원 정도. 이 중 절반 이상이 '장비대여'로 잡혀 있으나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님과 의 면담에서 마을르네상스센터 측과의 협조만 이루어지면 장비대여는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허성. 실제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을 영화제를 보다 성대하게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7. 자씨네 영화제 : 10월 중 개최.



**시놉시스**

어느 날, 은원은 헤어진 연인 다함을 찾아온다. 그리고 다짜고짜 돌려 받을 돈 70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그러자 다함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제작진**

제작/연출/각본/편집\_ 허성완

연출부\_ 김동민

프로듀서\_ 류문희

촬영부\_ 박철우 박하민

조연출\_ 김승혁 윤범식

조명부\_ 정문균 이해림

촬영/조명\_ 박영대

현장스틸\_ 하홍일

미술\_ 마진석

출연\_ 이수정 이형주

의상/분장\_ 최윤희

이원웅 한시원

동시녹음\_ 최유진

제작지원\_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크립터\_ 장윤희

## 감독의 말

이 작품은 2018년부터 2019년, 2년 가까이 새로운 영화를 찍지 못한 채 영화로부터 멀어져 있던 저를 ‘난민’으로 여기며 그 시기를 정리하고 다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개인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신작 <세계 던져진 세계>를 준비하던 중 캐스팅까지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작품이 었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때를 돌이킬 때마다 함께 작업하지 못한 신기환, 윤설, 조은원 배우님 그리고 스탭분들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과는 또 별개로 저는 이 작품을 통해 가까스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영화에 ‘현재와 실재’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당시 썼던 짧은 연출노트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가 가진 모순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에는 오직 현재와 실재만 존재합니다. 영화의 문법에는 과거형이 없고, 영화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실재하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보이게 하는 순간 그것은 실재로 착각되기 쉽고, 어떠한 장면이 과거에 대한 회상임을 인지시켜주는 조잡한 장치들을 걷어내면 모든 장면은 즉각 현재가 됩니다. 저는 이번 작품에서 그러한 모순성

을 좀 더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 연어나 다함이 실재하는 인물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 현실이 아닌 건지, 내러티브의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문은, 의미있지만 핵심에선 비껴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은원이 다시 잘 살아가게 될 것이란 희망입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제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SF, <세계 던져진 세계> (이 글을 읽으실 분들 중 누군가는 이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가 무기한 연기된 후 제가 느낀 것은 상실이나 좌절이 아니라 모욕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치욕적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서적 난민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가 뿌리뽑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기)가 없어서 즐기(승)도 없고, 가지(전)도 없으며 열매(결)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떠돌 뿐입니다.

\*

<세계 던져진 세계>는 올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았고, 작품은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2018년 버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구성한 가상의 세계관에 새로운 세계관을 중첩시켰는데, 그로서 작품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놉시스**

산책을 하는 소정과 건하. 건하는 삶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제작진**

각본/연출/편집\_ 허성완

촬영\_ 마진석

동시녹음\_ 김승혁

출연\_ 김건하 민소정

보조출연\_ 김승혁 류문희 한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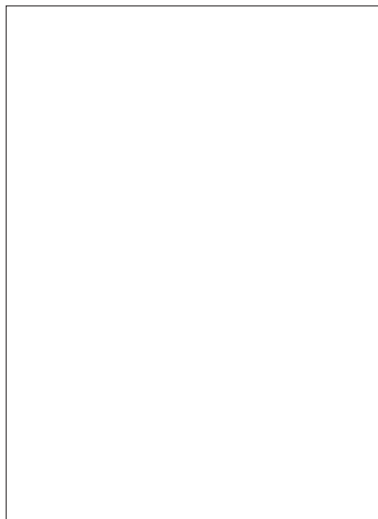
**연관프로젝트**

세컨드크랙 소요필름 정기 상영회: 제2회 <집속>

## 감독의 말

초청작 중 한 편인 <도어매트>를 연출하신 김승혁 감독님은 저 그리고 소요필름과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것은 김 감독님께서 주차되어 있던 제 차의 범퍼를 받은 접촉사고 덕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후 얼마 뒤 저는 <우리, 난민들>의 조연출로 김승혁 감독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뒤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20, 2021년에 걸쳐 개최했던 정기상영회였습니다. <세이프티 인 넘버스>는 그 중 2021년에 개최한 상영회를 위해 기획하고 제작한 단편입니다. 당시 주변사람과 나눴던 대화, 제가 가진 생각들을 버무려 아주 단순한 형태 안에 담아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매우 단출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평범해지는 것을 탈피해보고자 약간의 실험성을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형식상 실험 덕에 배우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연기하셨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해두었던 생각, 가졌던 느낌들을 잘 저장해두었다가 그걸 인물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느낌들은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고 추하고 어리석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 몇 개를 작품 속 건하에게 주고 그걸 그의 입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건하는 소정과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고보면 영화는 저에게 일종의 사고실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실 안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야할지를 테스트해보고 또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놉시스

기후위기, 팬데믹으로 인류가 급감한 미래. 인류는 일명 지구 복원 계획에 착수한다. 계획의 핵심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류의 생산 및 소비 활동과 물자와 인구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문화, 예술, 향락도 함께 금지된다. 한편, 그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이들은 통제구역인 도시를 벗어나 이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 부른다. 어느 날, 리얼리스트를 검거하는 수사관 기주와 인준은 한 야적장에서 리얼리스트들의 거점을 발견하고 잠복에 들어간다.

## 제작진

제작/연출/각본/편집_ 허성완	연출부_ 성빈
프로듀서_ 조현아	제작부_ 구한솔
조연출_ 김승혁	촬영부_ 김영민 이병노 노윤
촬영/조명_ 김병일 손지호	미술부_ 윤지원
미술_ 마진석	현지코디네이터_ 이병노
의상/분장_ 이지윤	출연_ 광승일 기다운 임이지
동시녹음_ 서경원	전려은 한시원
스크립터_ 유한나	제작지원_ 경기문화재단
에코매니지먼트_ 조현아	

## 연관프로젝트

전시 <내 사랑의 생태계>  
단편 <정상에서 일어서기>

내 사랑의 생태계

2022 / 혼합 / 25분

<가늘고 긴 투명한 빛>에서는 흑백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일부 후반작업이 진행중입니다.

## 감독의 말

이 작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지방 올로케로 전북 부안에서 촬영을 했고,

촬영 당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는데 무엇보다 좋은 공동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영화는 대개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영화는 좋은 공동체로부터 출발한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점차 저만의 현장 운영 방식을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내 사랑의 생태계>는 제가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갖고 있던 관심을 풀어내본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선 제가 과거 썼던 글을 뒤 잇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은 고백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 그것은 돌처럼 분명하며 물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우리가 무언가와 사랑에 빠질 때, 우린 그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동시에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까봐 조마조마해 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훌륭한 이론을 총동원하더라도 사랑의 행방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은 기대와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 같은 불안, 그 상반된 두 개의 마음 상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것뿐이다. 균형을 잃는 순간 자신과 주변을 망가트릴 테니 말이다. <내 사랑의 생태계> 역시 그렇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망가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를 계속 만들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균형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4년 첫 단편을 만든 이후로 난 여러 편의 영화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목격한 것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것들과 소모되는 것들이었다. 가령, 창작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영화를 통해 돈을 벌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노동 대비 임금은 여전히 적다), 프로덕션이 끝나면 용도폐기되는 물건들, 탄소배출이나 쓰레기 등으로 악영향을 받는 생태환경, 착취되는 지역성 등이 그것이다. 그걸 정리하면 크게 창작주체, 로컬,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세 개의 관점 안에서 앞서 언급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는 핑계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망가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영화’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환경’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실제로 할리우드의 영상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는 오일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1) 생각해보자. 영화는 실제 장소가 있어야만 촬영할 수 있다. 그 장소를 로케이션이라 부르고, 영화제작자들은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가장 적합한 로케이션을 오매불망 찾아다닌다. 영화의 규모에 따라 로케이션은 국내를 넘어 해외 어딘가가 될 수도 있으며, 장편 영화의 편당 로케이션은 많게는 수십 곳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곳까지 이동하는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타는 차, 비행기 등이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세워진 베이스캠프에서는 다양한 일회용품이 사용되며, 먹고 남은 음식들은 폐기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조명 장비들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시시각각 탄소를 배출한다. 나아가 장면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훼손되는 생태환경도 있다. <봉오동전투> 촬영 당시 동강 유역의 할미꽃 주 서식지를 망가트린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만약 영화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면? 세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트는 영화가 끝나면 해체되어 일부는 재활용되고 일부는 폐기된다. 의상이나 소품들은 또 어떠한가. 그런 식이다.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끝이 없다. 영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망가지는 것들과 소모되는 것들도 덩달아 많아진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영화산업의 환경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나 현장의 문제의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욱이 관련된 법률 제도나 조사, 선행연구도 미비하여 지난 해에야 겨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연구 보고서 한 권이 발간되었을 정도다. <지속가능한 영화 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2) 바야흐로 K-콘텐츠의 전성 시대에 걸맞지 않은 상황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은 대단히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과 불안함은 나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려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이기심의 발로이다.

“과연 지구는 멸정할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고백컨대 난 모두가 그와 같은 이기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세상이 진짜로 변한다고 믿는 쪽이다. 아무튼, 그렇게 <내 사랑의 생태계>는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영화산업의 친환경적 측면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둘째, 영화 창작자로서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그를 위해 우리 단편영화 한 편을 제작했고, 그 프로덕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기록했다. 솔루션을 탐색하고 실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허나 우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모자랐던 까닭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우리 그 어려움까지도 제작일지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확보된 다양한 자료들은 전시를 마친 후 더 가다듬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가능한 선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보고자 노력했다. 촬영 현장에서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생분해되는 제품을 썼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식당을

섭외해 아침 저녁으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아 먹었다. 거기에는 창작주체인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보다 질높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예산이 적을수록 영화현장은 열악하고 그것이 식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로케이션과 가까운 숙소를 섭외해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이루어진 만큼이나 현장에 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우린 숙소와 로케이션 간의 거리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로케이션을 전북 부안으로 설정하면서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그곳까지 이동해야 했다. 일부 스태프들은 전주, 부안 등지에서 섭외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또한 우린 예산 문제로 딱 이틀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그에 반해 찍어야 할 씬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현장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 인력들에게 철저한 분리수거를 요청하는 건 무리였다. 결국 쓰레기들은 서로 뒤섞였고 이후 분리수거를 진행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즉, 예산과 로케이션 상황, 작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프로덕션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린 이번 기회에 그 사실을 명백히 깨달았다. 결국 그 역시 ‘균형’이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우리의 생각을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를 통해 우리는 얻은 것이 참으로 많다.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가늠해볼 수 있었다. 물론 아쉬움도 많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세운 두 가지 목표를 과연 충분히 달성했는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 사랑의 생태계>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린

이 프로젝트를 시발점으로 삼아 ‘균형’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창조하는 동시에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끝장날 수도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균형 상태 말이다. 그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느꼈지만, 그럼에도 노력해야 하며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느꼈다. 나아가 ‘환경’ 뿐만 아니라 ‘창작주체’와 ‘로컬’의 관점에서도 영화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나갈 것이다.

난 철저히 개인적인 사랑 고백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서 출발한 글은 어느샌가 ‘우리’가 되어 있었다. 어려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팀원들과 협력 단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아무래도 이 글은 이렇게 끝내야 할 것 같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게 (지속가능한) 영화이니까 말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연계프로젝트 결과자료집> 수록

참고자료\_

- 1) 김세환, “친환경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가별 가이드라인의 비교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4), 100.
- 2) <https://www.eco.or.kr/Data/?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8456631&t=board>

## 전시 <내 사랑의 생태계>

전시를 통해 저희는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시하고,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제작일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제작에 사용된 의상, 소품 등의 리셀도 기획하였으나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듯 이런 부분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합니다.



## 단편 <정상에서 일어서기>

이 작품은 2022 울주서밋에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제작예정인 단편으로, ‘지속가능한 영화’에 대한 고민을 영화형식상의 실험으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9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심사 당시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영화 형식과 제작시스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펼쳐보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필름은 지속가능한 영화에 대한 실험을 영화예술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 양쪽에서 모두 고민하면서 꾸준히 관련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시놉시스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물류와 운송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운송수단 이용 허가제가 도입된 미래. 주아는 아끼는 친구 경민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송수단 이용 허가를 신청한다.

## 제작진

제작/연출/각본/편집_ 허성완	연출부_ 성빈
프로듀서_ 조현아	제작부_ 권은비
조연출_ 김승혁	촬영부_ 송상은 강나루
촬영_ 박영대	조명부_ 김원 김동연
조명_ 김원준	고명준 노승민
미술_ 마진석	분장팀_ 변영순
의상_ 이지윤	편곡_ 윤석재
분장_ 김아름	연주_ 연규석
동시녹음_ 서경원	출연_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음향/음악_ 백승서	특별출연_ 김유하 성빈 임이지
스크립터_ 유한나 변은혜	전려은
캐스팅_ 이상훈	보조출연_ 김상수 김은서 김서환
CG_ 류경태	노성례 박다운 박지민
	제작지원_ SESSIFF SMIFF

## 연관프로젝트

기후독재 시리즈 (2024)

거기서 만나

2023 / 컬러 / 18분

<가늘고 긴 투명한 빛>에서는 흑백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일부 후반작업이 진행중입니다.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일 겁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물론 완벽한 제작현장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덜 먼 구스러운 근거입니다.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3. 08. 17. - 0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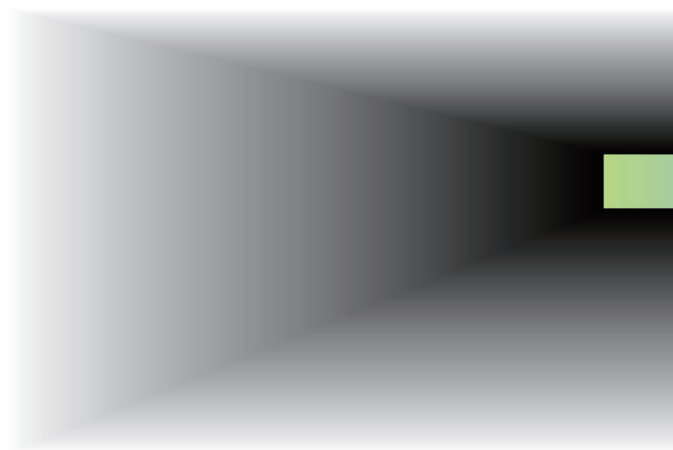
## 소개

예석하게도 이번 시즌 오프의 상영/전시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작품과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비록 간략하나 그것들에 대해 소개하고, 내년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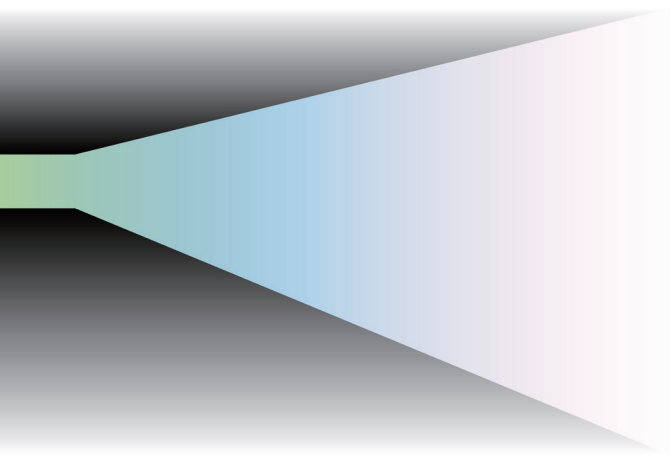
지난 10월 마무리한 전시 <오, 나의 부이>에서도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세월호는 계속 가져가게 될 주제 중 하나인 듯합니다.


확장되는 스크린,  
우정의 목록들







초청 상영작 소개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허성완

각본\_ 허성완

촬영\_ 목충헌

동시녹음\_

출연\_ 권다함 강선희

현장지원\_

제작지원\_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연계프로젝트**

제1회 자씨네 마을영화제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입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털 면구스러운 근거입니다.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허성완

각본\_ 허성완

촬영\_ 목충현

동시녹음\_

출연\_ 권다함 강선희

현장지원\_

제작지원\_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연계프로젝트**

제1회 자씨네 마을영화제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입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털 면구스러운 근거입니다.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마진석

각본\_ 마진석

촬영\_ 목충헌

동시녹음\_

출연\_ 권다함 강선희

현장지원\_

제작지원\_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연계프로젝트**

제1회 자씨네 마을영화제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입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털 면구스러운 근거입니다.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이정주

각본\_ 이정주

촬영\_ 이정주

동시녹음\_이정주

출연\_ 이정주

**2024 제 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입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털 면구스러운 근거입니다.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매일 계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작진**

연출\_ 장예린

제작

프로듀서\_

각본\_ 장예린

촬영\_ 목충현

동시녹음\_

출연\_ 권다함 강선희

제작지원\_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국제지하철영화제

**연계프로젝트**

제1회 자씨네 마을영화제

## 감독의 말

<거기서 만나>는 전작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 <거기서 만나>의 세계가 좀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사랑의 생태계>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이지운 의상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두 편 모두 참여하신 전려은 배우님의 의상 컨셉을 히피로 설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나>에서 전려은 배우님은 특별출연이셔서 아주 잠깐 등장하십니다.) 배우님이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히피와 세기말을 뒤섞어놓은 느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최근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후 독재 사회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분삼은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편입니다. 모든 독재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니깐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다시 <거기서 만나>로 돌아와보면, 이 작품에서 저는 온갖 위기들로 인해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청춘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컨셉도 청춘로맨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화의 정서란 것이 설렘보다는 애뜻함, 애처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어서 설렘이 필요한 청춘로맨스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건 김주아, 우효원 두 배

우분 덕분에입니다. 가령, 대기실 씬에서 유일하게 찍은 두 배우의 투샷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두 사람이 꿈냥 거리는 것이 귀여워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찍고 말았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품에서 함께 부안에서 고생했던 스탭분들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해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번만큼은 그 분들을 괴롭히진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냈고, 어찌면 내년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털 면구스러운 근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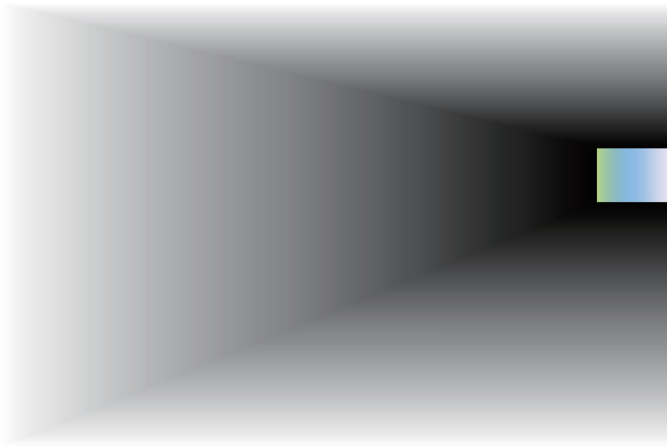
김주아, 우효원, 이시훈 배우님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신 보조출연자 분들, 저를 한 번 더 혹은 처음으로 믿어주신 스탭분들, 여러 도움을 주신 이상훈 이사님, 손광수 프로그래머님, 함한결 팀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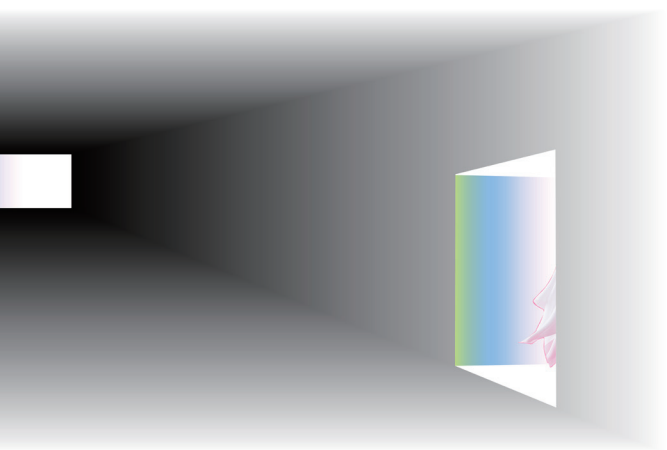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 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값집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저를 강하게 단련(?) 해주신 E-CUT 담당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역시 영화는 함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도어,  
미래의 마음





초청 상영작 소개

(대략 2, 3년 후) 올해 소요필름의 시즌 오피는 본질로 돌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첫 시즌 오피가 그랬던 것처럼 소요필름이 지향

## 섹션 1. 짧지만 충분한 영화

소요필름은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하나 필요했던 것인데 이왕 이름을 정한 김에 슬로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짧지만 충분한 영화’ 입니다. 그렇게 정했을 당시의 문제의식은 “어쨌든 단편영화는 단편소설과 처지가 다른가?” 였습니다. 소설작가들은 대부분 장편과 단편을 자유롭게 오가고, 그들이 쓴 장편과 단편 모두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느낌(의문)이 이후 소요필름의 개성을 만들어가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대략 6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지만 충분한 영화는 어떤 영화든 우리 삶에 비한다면 짧다는 믿음으로 단편, 장편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가겠다는 소요필름의 근본적인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희가 만든 단편들을 소개하고, 단편과 장편 사이를 가로놓는 장편 제작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 섹션 2. 함께 만드는 영화

트리핑

X<sup>2</sup> 시리즈의 새로운 책 <10X10>이 출간되었습니다.

## 섹션 3. 지구를 지키는 영화

아,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소요필름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지구가 멀쩡해야 저희가 사랑하는 영화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영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영화의 형식을 관찰하는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 초기 실험에 해당하는 <내 사랑의 생태계>, 그리고 후속 프로젝트인 <정상에서 일어서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